

# “재배면적 관리로 쌀값 안정... 현장중심 농정 실현할 것”

## 취임 100일 맞은 김영록 농림부장관 인터뷰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대 수장을 맡은 김영록 장관의 ‘발로 뛰는 현장 행보’가 호평을 받고 있다. 취임 직후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 수습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노력, 쌀값 안정화 실현, 한미 FTA 개정 협상 준비, 붉은 불개미 유입 차단 등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뛰었다. 그러다보니 장관 취임 100일(지난 16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특히, 김 장관은 전남의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내는 동안 국회 농해수위에서 맹활약했다는 점에서 지역 농어민들의 기대도 크다. 광주일보는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김영록 장관을 만나 농정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답=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장관의 농정 철학과 목표는.

▲한 마디로 ‘가격 걱정 없이 생산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축산물’이 모토다. 특히, 식품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통상에 밀려 농업이 또 다시 희생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과거 통상을 중시하면서, 국가적 아젠다 속에 농업이 희생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업 분야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동안 농업 부문만 61억 달러(7조 원가량) 무역역조(수입 68억 달

를 보면 농식품 분야는 매년 0.5% 감소했다. 5.8%씩 늘어나는 재정 추이에 역주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을 짜면서 의료, 복지, 국방부문 예산을 대폭 증액하면서 빚어진 상황이다. 농업 분야는 애초 7000억 감소가 예상됐음에도 내부적 노력을 통해 결국 53억이 증액됐다. 국회의 본예산 심의시 예산이 증액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농정에 대한 의지가 미진한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 쌀값이 현재 15만원 수준으로 가는 것은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농업의 6차 산업화 등 농촌 구조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6차 산업은 선도적으로 참여할 농민과 지자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남에서는 구례 드림파크를 중심으로 친환경 생산, 유통은 물론 가공 산업까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레저, 관광부분까지 결합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지자체가 미래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농산물 제 값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

▲가격 오른다고 농민이 더 보지도 않고 유통과정에서 사라진다. 국가적으로 통제

하기는 힘들지만 가격 폭등락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팜’ 정책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관리에 나서겠다.

-부실 인증 등 친환경 농산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친환경은 신뢰가 생명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실 인증의 개연성을 최소화,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

-귀농·귀어 정책은.

▲귀농·귀어 인구가 늘고 있다. 이왕이면 40세 이하 젊은 분들이 와서 농촌에 활력을 주고 미래를 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특히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농에 중점을 둔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려고 한다. 귀농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교육 확대, 창업·주택구입 자금 지원, 초기 영농 정착지원금, 농지자금영농기술 지원 등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청년영농창업지원제도도 운영된다.

-올해 쌀값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쌀값은 상승 추세다. 특히 15일자 쌀값은 15만984원(80kg기준)으로 전년 대비 14.5%가 올랐다. 양정개혁(2005년) 이후 10월 가격에서 최고다. 이는 시장가격 37만 원을 포함, 총 72만 원의 쌀 매입 등 정부의 선제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 당분간 쌀 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장관 지명 이후, 쌀 값 15만 원 이상을 선언했는데 결과가 좋아 마음이 놓인다.

-내년에도 이 같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

▲결국, 과잉생산이 문제다. 과잉 생산하게 해놓고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쌀 생산 조정제 등 체계적 생산 관리가 필요하다. 재배 면적을 관리하면 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시장거래 물량 확대 등 정부의지도 중요하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주는 교훈과 정책적 변화는.

▲이번 사태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면 농식품

▲추석 전 상황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에 여론이 쏠리면서 이루지 못했다. 아쉽다. 다만, 국민 여론이 농수축산물만이라도 일정 부분 완화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가격 조정은 시민사회, 농민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우 농가 등을 중심으로 명절 1개월 전에는 청탁 금지법에서 품목을 제외해달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겠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혁신은 어떻게 되어나.

▲국민 일부에선 정부가 농민과 농업에 퍼준다는 인식이 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한 상태다.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담겼다. 쌀에는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 농림부가 농민과 함께 뛰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농정 개혁을 하자는 주문을 직원들에게 하고 있다.

-농협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닌 ‘농협을 위한 농협’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협이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생산자와 함께하는 것은 물론 유통을 맡아주고, 품목별 조합도 꾸리는 연합형태의 경제지주회사가 돼야 한다. 농

###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안해

### 블루오션 건강기능식품 산업 집중 육성

### 발작물 재배 지원·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리, 수출 7억 달러) 상태다. 국내 농업이 희생됐다는 명확한 증거다. 더 이상 농민도, 국민도 수용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협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을 요구할 경우 대응 방향은.

▲월령 제한 폐지요청은 없었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하지 않겠다.

-보수정권 9년 농정을 평가한다면, 농정 출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름대로 성과와 노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통시발적인 FTA 체결로 농업이 많이 희생됐고 농업을 사양 산업으로 인식하게 한 것은 문제다. 또 농가소득 불안이 이어지고, 도농 간 생활격차가 벌어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취

-우리나라 농정의 가장 큰 과제를 꼽는다면.

▲우선 쌀값 안정과 회복이 가장 큰 과제다. 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에 직불금 등 3조8000억 원, SOC까지 포함하면 5조7000억 원이 들어간다. 13조5000억 원 예산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쌀값 안정이 농업 부문 전체에 이롭다. 쌀값이 회복돼 안정되면, 절감된 예산으로 가축질병을 막고 채소와 과일 등 가격 안정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발작물 재배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 등 농정 구조 개편도 추진할 수 있다. 과제류도 주요 품목에 대해서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해 주고 생산 과잉에 대해서는 물량조절에 나서야 한다. 여기에 식품산업 발전, 특히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블루오션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 ‘스마트팜’ 정책 농산물가격 폭락 최소화

### 내년부터 청년영농창업지원제 운영할 것

### 부처 합동 TF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점검

산업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정부는 이를 가슴에 새겨 딱거리 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한 단계 도약하는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꾸려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붉은 불개미사태는 진정됐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환경부 담당이지만 항만 예찰과정에서 농식품부가 발견하면서 주무 부처가 됐다. 붉은 불개미 사태는 진행형으로 보면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화주에 대한 교육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동식물 검역뿐 아니라 컨테이너까지 범위를 넓혀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청탁금지법 가격 상향 조정은.

협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농협 개혁을 지켜보겠다.

-농피야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을 위한 농협,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관기관 퇴직 공무원이 인증 기관에 재취업해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전남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회 농해수위 활동 6년, 기재위 2년 경험을 바탕으로 농정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특히 쌀 값 안정과 현장 중심의 농정을 실현하겠다. 농축산어민들의 피와 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민심의 보이지 않는 성원을 잘 알고 있다. 말보다는 현장에서, 성과로 보답 드리겠다.

/정리=김영호기자 kh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당뇨콘서트

# 나의 인생 첫 당뇨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뇨와건강 환우회

강사 · 가슴 뛰는 내과 유중현 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방향  
보라안과병원 문규형 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중 원장 | 수완지구 관철척추병원  
인하루치과 이광훈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양태영 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 |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내분비내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필수

TAERYOUNG 21 HOSPITAL  
당뇨21 병원 (062)362-0075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척추관 형착증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 중점 치료합니다”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수술!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마음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